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버이주일 메시지

주여,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잠 3:1)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부모님은 하나님 사랑의 대행자로 내게 주신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 부모를 향해 혹 천대한다 해도 내게는 돌도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 분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분이시고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모님의 교훈을 저버리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교훈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들께 위탁하신 임무이기 때문이고,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분의 교훈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자신에게 복된 길이 되기 때문이다. 모세, 사무엘, 디모데 같은 성경 속의 출중한 인물들은 모두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함께 고임을 받게 될 것이며 허락받은 축복을 대대로 계대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가난해서 신음하는 소리, 억울해서 울부짖는 소리, 슬퍼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부모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드려야 한다.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효도는 윤리와 종교의 기본이다.

주여, 부모의 축복이 동결되는 곳에는 행복의 꽃도 필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오늘은 아버지 주일

경로잔치 등 다양한 행사 가져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주일로 지킨다.

교회학교는 주일예배 시간에 분당에 입장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1부: 중등부, 2부: 고등부, 3부: 대학부 주관) 그리고 대학부 및 청년부에서 연합으로 살롬 권사회와 사라 여전도회와

아브라함 남선교회(65세 이상) 회원들을 초청하여 아버지 주일 효도잔치를 갖는다.(오후 3시 30분 만나홀)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사랑과 탕자와 같이 방황하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도록 기도한다.

집사 및 권사 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

후보순서를 정하다

오늘 찬양예배 후에 2층 분당에서 서울교회 제9대 집사 및 제8대 권사 선출 건을 다루기 위한 제직회가 열린다.

이번 제직회에서는 서울교회운영규정 5조3항에 따라 당회에서 추천한 집사 후보 124명과 권사 후보 95명에 대하여 공동의회에 제출할 순위를 정하는 투표가 실시되며, 제직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는

5월 28일(주일) 공동의회에서 1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 중 순서대로 집사와 권사 각 70명씩을 선출하게 된다.

서울교회의 모든 제직은 빠짐없이 제직회에 참석하여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우리 서울교회를 섬길 신실한 일꾼을 뽑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2006홍해작전 준비 시작되다

6월6일(화)부터 25일(주)까지 20일간 새벽5시 본당에서

말씀과 기도 운동인 2006 홍해작전 준비가 시작되었다. 우리교회 성도들은 매년 6월6일 현충일부터 6.25 동안 기념일인 6월25일까지 20일간 조국과 교회, 가정과 개인의 홍해를 말씀과 기도로 건너고 있다.

이번 2006 홍해작전은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 40:1)를 주제로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20일간 새벽을 깨우며 공동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홍해를 건너게 된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조국의 안전을 위하여 제사장 교회로 세우신 서울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2006홍해작전 조직>

- 사령관: 이종윤 목사
- 참모장: 왕경래 장로
- 기획참모부: 송인권 집사
- 예배와 찬양 참모부: 김영준 장로
- 동원 참모부: 조정식 장로
- 홍보 참모부: 김규태 집사
- 봉사 참모부: 이관규 장로
- 안내 참모부: 정동학 집사

<2006년 홍해작전 기도제목>

1.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실의와 절망과 불신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3. 주여, 위로하여 주소서
상처 입은 백성과 분단된 조국이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기다리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4. 주여, 속히 이루어주소서
백성의 위로자며 세계교회의 향도자로 선교와 교육과 구제의 세 기둥을 세운 우리교회의 기도제목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5. 주여,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길러주소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건너야 할 홍해를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길러주소서 시온의 대로처럼 믿음으로 밟고 건너게 하옵소서.
6. 주여,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서울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7. 주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위하여 살고 주님의 몸 된 교회 때문에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따라 충성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원 세미나

5월19일(금) 오후 7시30분 101호에서

찬양대원 세미나가 5월19일(금) 오후 7시30분 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찬양대원 세미나의 강사로 는 이영조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한국예술중

합학교 교수)가 서게 된다. 본 교회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은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한다.

제14차 KIMCHI 신학세미나

6월5일(월)-6월14일(수)까지 10일간

동아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되는 제14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6월5일(월)-6월14일(수)까지 10일간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금번 KIMCHI 세미나는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주제로 동아시아에서 30여명의 교계 지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교계지도자들이 무사히 입국하여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며 선교의 비전을 받는 귀한 시간되도록 기도한다.

<2006 KIMCHI 세미나 조직>

지도: 이성득 목사 위원장: 이영기 장로

| 분과 | 부장 | 차장 |
|-------|-----|---------|
| 기획/진행 | 김세재 | 박두호/양정실 |
| 의전 | 정병무 | 조정식/문형순 |
| 안내 | 신용식 | 김영주/나연신 |
| 시설 | 하영수 | 오유식/김규태 |
| 음향 | 박두영 | 탁경준/조철기 |
| 재정 | 노송성 | 이강인/이현주 |
| 홍보 | 전기설 | 김중윤/신동기 |
| 봉사 | 이관규 | 이영희/김정희 |
| 의료 | 이복규 | 하인선/이운진 |
| 통역 | 오영숙 | 김인수/윤갑숙 |

2006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

▷ 성경대학 사도행전반 (42명): 고원순 콰미숙 김미혜 김보경 김옥순 김영진 김용혁 김재영 김재준 김정미 김진희 남태영 박길희 박석현 박분옥 박순복 박이선 성경자 여현진 오정숙 우경애 위현주 유신 안미경 유중관 이난화 이상호 이재순 이영미 이혜순 이현주 이해경 장명순(사) 장명순(비) 전용순 정경자 조상희 정희순 진선자 최중희 황노전 이미숙

▷ 성경대학 사무엘상반 (32명): 고영숙 김경민 김명심 김미성 김미애 김옥순 김용혁 김재영 김재준 김정미 김진희 남태영 박길희 박순복 박정임 신은숙 심선희 안선광 오혜경 유재숙 윤용미 은기장 이경화 이금순 이상호 이소명 이신애 이현주 정명숙 주희연 차도훈 최재식 ▷ 주부대학(1,4학기 수료) 이재봉

▷ 성경대학 로마서반 (38명): 강석조 김경아 김도훈 김상태 김숙자 김연화 김영주 김옥순 김용혁 김진희 노정훈 박경희 송미령 송은선 송은진 안경호 왕경래 유명석 이계홍 이관규 이승래 이종창 이주연 이혜순 이현주 이해경 이화용 임송자 정병무 정승용 정유정 조동완 조상희 조영식 조영재 주동재 최정순 황정웅

▷ 성경대학 레위기반 (29명): 강성웅 고석규 김경래 김금준 김미경 김상태 김성경 김숙자 김연화 김옥순 김용혁 김진희 노문환 류장렬 박광식 박두영 박현영 손현순 이갑연 이민화 이현주 이해경 장정화 전현자 정병무 정복순 조순영 한선현 한치중

▷ 교사양성반 (27명) 강낙훈 강윤숙 박선자 권희순 김경민 김광신 김남옥 김성은 김영숙 김영희 김재중 김정희 남상경 노재현 박혜선 방효철 백승갑 서경애 우경애 유종숙 이양숙 임미경 장은영 정병무 최원자 홍창배 황병석

▷ 교구일꾼양성반 (22명): 강성은 김명화 김미경 김주년 김혜중 남현주 박정희 송경희 신영전 오현수 유재숙 이순영 이신애 이영애 이해경 장명순 장호린 정동화 조정옥 최희희 최춘숙 황경진

▷ 선교대학 (27명): 방효철 이갑진 이영기 정병무 박 속 이영숙 김수정 김영주 김인수 김혜중 문형순 박정임 송성식 양정실 위정남 이현주 정동학 정유선 최항렬 김해수 임기선 홍일성 오주명 김경옥 최규초 원용범 은기장

▷ 살렘경도대학 (67명): 고석규 공진문 국신옥 김계순 김덕자 김봉녀 김선미 김순애 김신애 김연정 김은혜 김인순 김자경 김정희 김중순 김중자 김하중 나옥녀 문순재 박보선 박분화 박상금 백영숙 서귀용 서창호 서현기 송인순 송영강 심상택 영정순 오이순 왕은덕 원복순 유환희 윤민현 윤익석 이기순 이민화 이순창 이우상 이원희 이응남 이임순 인천희 임달자 장성자 전임순 정귀임 정병무 정빈도 정인득 조순이 조옥섭 주백묘 최무순 최은덕 최순애 최은정 최창화 최항봉 탄금희 한경서 한영희 한지중 허인숙 홍광숙 홍복산

교구찬양대회

우리 모두가 놀란 찬양의 밤

사랑상은 6교구가

지난 12일(금) 밤은 우리 모두가 놀란 밤이었다. 그동안 교구위원회(위원장 임상현 장로)가 준비한 각 교구의 찬양대원들이 오색 찬연한 의상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환희와 화합의 장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랑상(6교구)

14개 교구를 비롯하여 호산나 학교 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예배다부의 특별출연까지 무려 두 시간 동안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볼꽃 튀기는 거룩한 경쟁을 벌리며 질서있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분당에 찬양대원들로 가득 찬 이날의 대회는 참여도에서 이미 결판이 날 만큼 50점을 배정했으나 교구장을 비롯한 간사들과 다락방장의 뜨거운 열심으로 갓난아기까지 안고 나오고 휠체어를 타고 오신 노약자까지 정성을 모았기 때문에 이것역시 점수의 격차를 벌리는데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청중의 호응도는 청중석에 앉아있는 교구장들이 자기 교구를 제외한 채점방식을 택함으로 앞자리에 앉은 심사위원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을 체크했고 객관성을 더욱 가미함으로 공정한 심사를 유도했다.

음악전문가들의 음악성과 준비성을 채점한 교역자들도 한결 같이 수준과 열심이 너무나 높아 여기서도 모두가 일등이라는 결론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문제는 시작 30분전 입장시간 지키기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심 직한 찬양을 드렸는지가 우리의 관심사였다.

결국 이날의 14개 교구는 모두 우승 트로피를 받았고 상품도 똑같이 받았다. 사랑상은 6교구, 믿음상 4교구, 소망상은 3교구가 차지했다. 6교구는 오늘 찬양예배 시 특순을 한다.



▲믿음상(4교구)



▲소망상(3교구)

아버이주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장정화 권사(11교구)

사랑하는 할머니,

오랫동안 불교 신앙에 젖어있던 할머니께서 작년 6월 에 세례를 받으신 후 처음 맞는 아버지주일입니다.

2년 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실 때에는 낯설고 어색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배도 잘 드리고 목사님 말씀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저와 남편 노 장로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드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하여 주심으로 할머니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세례도 받으시어 믿음의 여생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90을 훨씬 넘긴 노령이 되시어 출입하시기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주일예배는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하시며 목요일 경로대학에도 참석하실 수 있어서 얼



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들으시는 일, 말씀 하시는 일 그리고 기억하시는 일 모두 건강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할머니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여져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목사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건강하셔서 교회에 출입하시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 장로와 저의 생일은 물론이요 증손자인 선균이와 재균이의 생일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할머니께서 다음 달에 결혼하는 선균이 얘기를 들으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저희들을 더욱 기쁘게 합니다.

할머니, 저희 모두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손자 손녀들의 효도를 받으시며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이주일

그리운 부모님

조현숙 (대학부)



일 년 내내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곳에서 저는 오늘도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금 이때쯤 피었을 봄꽃과 향긋한 봄나물들을 떠올립니다.

제 그리움이 한국에 머무는 까닭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믿음의 모교가 그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제게 많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부모님을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과 감사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끊임 없이 가르쳐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며 자랑스러워 하시곤 했습니다.

커가면서 아플 때나 슬플 때 힘들고 지칠 때 조용히 다가와 친구처럼 제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주시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어렸을 적 새 옷과 새 신을 사주시며 주일날 첫 번째로 입고 최고로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

또 아버지는 크리스찬의 삶을 몸으로 익히게 해주시고 신앙은 하나님과 나, 일대일 관계의 신앙이라며 게으른 저의 믿음을 채찍질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에도 큰 믿음을 제게 주시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다녀오라고 적극 후원해주시던 부모님...

먼 곳에 있는 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더 많은 시간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지만 저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 하셨던 것처럼 저도 매일같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가 하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딸이 되기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딸 현숙 올림

성지순례

서울교회 성지순례단 드디어 가동

10월30일(월)-11월13일(토)

우리교회는 창립 초부터 수많은 눈물과 땀을 쏟고 기도와 헌신과 인내를 어느 교회보다 많이 흔적들을 갖고 있다. 그때마다 이종윤 목사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하면 성도여러분과 성지순례를 하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공사석에서 하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지난 해 대망의 헌당식을 한 우리교회는 목사님의 약속이행의 날을 기다려오던 중 지난 9일 당회에서 마침내 서울교회 성지순례를 10월30일(월)부터 11월13일(토)까지 13일간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4개국을 순례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고 모세와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노정을 체험키로 했다.

CBS 기독교 방송 여행사의 도움으로 호렙산, 갈릴리 바다, 베들레헴 등지에서 이종윤 목사는 촛불예배, 성찬식을 집례하고 특별문화행사까지 펼치면서 대규모 순례단을 조직 운영할 방침이다.

당회는 서울교회 성지순례단의 명칭을 'Pilgrim's Vision Trip' 팀으로 정하고 오정수 장로(당회서기)를 단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번 순례단의 경비는 각자 지불해야 하며 1인당 경비는 (항공료, 호텔, 식사, 비자비, 국경세, 유류할증료, Tax를 포함하고 성지안내책자, 고급T-shirt, 여행용 배낭을 선물로 받는 조건으로)299만원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늦어도 7월말까지 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다음 주부터 사무국에 안내책자를 마련해놓을 것임으로 보시기 바란다.

단, 해외 가족이 참여할 경우 이스탄불(터키)에서 만나 함께할 수도 있다.



▲ 시내산에 있는 수도원

아버지주일

믿음으로 키워주신 아버지

김지홍 (청년부)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어느덧 파란 새싹이 움트는 봄도 한참 지나갔네요. 큰 일교차로 건강에 문제는 없으신지 걱정됩니다. 제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자취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어머니와 함께 두 분만 계시니 얼마나 쓸쓸하신지요.

작년 아버지날엔 아버지 얼굴을 뵈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 하는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하지만, 편지로나마 아버지를 뵈게 해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함께하신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니 제가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던 저에게 아버지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관심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사랑하고 계셨지만 저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

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러서 더욱 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5일(월) 한국기독교학술원과 한기총 신학위원회 공동주최로 한국교회의 신학적 정체성 탐구 모임을 소집한다. 16일(화) 북한구원운동 목회자세미나 준비모임, 18일(목) 군선교 신학 편집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 이사: 김중윤, 이종돌집사(8교구) 노원구월계동12 삼호아파트
- 주간 식당 봉사: 베드로선교회 (5월14일) 바울전도회(5월21일)
- 금주의 식사: 이광열 집사 엄금순 권사 (자녀결혼 감사) 한중우 집사 황노전 권사(장례를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임시 오르가니스트 임명

교회는 주일 찬양예배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하시던 오신옥 집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휴직을 하게 되어 임시 오르가니스트로 김윤지 선생을 임명하였다.

생명의 말씀(CTS TV) 방송시간 임시변경

CTS TV 생명의 말씀 프로그램을 통해 나가고 있는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시간이 임시 변경된다. 기존방송은 5월 15일(월) 오후 1시30분에 방송되나 방송사 특별행사 관계로 5월 15일(월) 하루 오후 4시에 방송된다.

| 구분 | 시 간 | |
|---------|--------------|-----------|
| 주 일 예 배 | I 부 | 오전 9시 |
| | II 부 | 오전 11시20분 |
| | III 부 |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 영 어 예 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 수 요 예 배 | I 부 | 오전 11시 |
| | II 부 | 오후 7시 |
| 금 요 기도회 | 오후 9시30분 | |
| 새 벽 기도회 | 매일새벽 5시30분 |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정 복음화가 평안을 위하여
2. 호산나 복지법인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3. 북한의 신앙자유와 디아스포라 영어교실 개설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5.31 지자체 선거를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지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